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및 웰다잉 인식에 관한 연구 Study on Death Education and Well-Dying Recognition for University Students

송유림, 박아르마, 김광환(건양대학교)

## 차 례

1. 서론
2. 연구방법
3. 조사결과
4. 결론 및 고찰

■ keyword : | 웰다잉 | 죽음교육 | 대학생 |

## 1. 서론

1)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1]. 죽음의 이러한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부정이나 회피 또는 혐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몸이 건강할 때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2]. 우리에게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고 죽음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죽음의 원인은 사건,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죽음의 유형은 자살이다. 20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죽음이 사망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3]. 특히, 최근 5년 동안 대학생 자살자 수는 2011년 15명에서 2015년 6월 말 12명으로 60%가 증가하였다[4].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렇게 죽음이 자살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젊은이들의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성찰 기회의 부족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리고 죽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

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5].

죽음준비교육은 죽음, 죽음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철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다학제적 교육이다.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학업, 군입대, 취업 등의 부담 속에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며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의 의미를 성찰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6]. 죽음준비교육을 시행한 결과,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죽음교육의 효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대학생 대상의 '죽음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대학생 대상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죽음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K 대학에서 '죽음학' 관련 교양강좌

1)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6035107)

를 수강한 보건 의료계열 학생 중 미응답자를 제외한 2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주거형태, 종교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7문항, 죽음교육의 내용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22문항, 죽음교육의 문제점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죽음교육의 주요내용의 중요도 체크리스트는 [1=매우 중요하다], [2=중요하다], [3=보통이다], [4=별로 중요하지 않다], [5=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척도를 주어 평가하였다.

## 3. 조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173명(81.6%)으로 남자 39명(18.4%)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의 전체의 92.0%인 195명, 21세 이상은 17명(8.0%)으로 나타났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196명(92.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2학년 이상이 16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63.2%인 134명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69명(32.5%)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응답하였다. 자취 또는 하숙을 하는 사람은 8명(3.8%), 기타 1명(0.5%)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는 124명(58.5%)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개신교 51명(24.1%), 천주교 27명(12.7%), 기타 2명(0.9%) 순으로 나타났다[표 1].

### 3.2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대학생들의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12명의 응답자 중 50.5%인 107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8명(36.8%), '필요하지 않다'는 27명(12.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죽음교육이 시행될 경우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3.7%로 '참여의사가 없다' 35.8%보다 높은 분포를 보

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죽음교육을 시행해야 할 기관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학이 72 (34.0%)로 대학에서 죽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교육기관(학회, 협회 등)이 51명(24.1%), 사회복지기관 25명(11.8%), 종교기관 20명(9.4%), 의료기관 19명(9.0%), 대학원 10명(4.7%), 문화센터 7명(3.3%), 기타 7명(3.3%), 주민자치센터 1명(0.5%)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죽음교육 시행 시 가장 적합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18명(55.7%)이 대학교 때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교 51명(24.1%), 중학교 24명(11.3%), 대학원 17명(8.0%), 초등학교 이하 2명(46.1%)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죽음교육의 적절한 교육비를 묻는 질문에는 117명(55.2%)가 무료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0만원 이하는 72명(34.0%), 10-19만원이 13명(6.1%), 20만원 이상이 10명(4.7%)의 분포를 보였다 [표 2].

### 3.3 죽음 교육의 시행 횟수

죽음교육을 시행할 경우 한주 당 시행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1.21회로 남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시행 주수를 묻는 질문에는 남자가 6.49주로, 여자(4.51주)보다 남자가 생각하는 시행 주수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표 3].

### 3.4 죽음 교육의 내용 및 인식

우리나라에서 죽음교육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119명(56.1%)이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이 42명(19.8%),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가 33명(15.6%),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9명(4.2%), '매체를 통해 죽음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8명(3.8%), 기타 1명(0.5%)의 분포를 보였다. 죽음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상실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 제공'이 147명 6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를 기피하지 않고 정상생활을 하도록 도움' 28명(13.2%),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정보제공' 27명(12.7%), 장례절차 및 예식에 관한 정보제공' 10명(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 3.5 죽음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분석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1.9%가 ‘언젠가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하여’ 56명(19.4%),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보기 위하여’ 48명(16.7%), ‘가족, 친구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45명(15.6%),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이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43명(14.9%), ‘앞으로의 삶의 승화와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기 위하여’ 30명(10.4%), 기타 3명(1.0%)으로 나타났다[표 5].

죽음교육의 교육자로는 ‘죽음준비교육 전문가’라고 응답한 사람이 175명(59.9%)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뒤로 교수 49명(16.8%),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39명(13.4%), 성직자 18명(6.2%), 기타 6명(2.1%), 사회복지사 5명(1.7%)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 3.6 죽음교육의 내용별 중요도

죽음 교육 내용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살 및 자살예방(방지)’가, 1.78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소중함 및 의미 있는 미래의 삶(여생) 준비’ 1.85, 죽음의 의미와 인식 및 삶의 가치’ 1.94 순으로 나타났다[표 7].

## 4. 결론 및 고찰

최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의미 있게 맞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8]. 웰다잉을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알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죽음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죽음 교육을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p < 0.05$ ).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언젠가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죽음 교육 시행 시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 교육 시행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대학 및 교육기관을 선택하였고, 죽음교육의 시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대학 입학 이후라고 응답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죽음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관해서는 무료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죽음교육의 주체에 대해서는 죽음 준비교육 전문가가 죽음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의정(2012)[9]의 연구와 같이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교육이 시행될 경우 4주 동안 주당 1회씩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p < 0.05$ ).

현재 우리나라에서 죽음교육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는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죽음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죽음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실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 제공’이 가장 높게 응답된 것으로 보아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상실을 최소화하고 죽음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교육의 내용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살 및 자살예방(방지)’, ‘시간의 소중함 및 의미 있는 미래의 삶(여생) 준비’, ‘죽음의 의미와 인식 및 삶의 가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대상의 죽음 교육에서는 상실과 치유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한 지역의 단일 학교, 동일 계열 학생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명(%)

구분		N(%)
성별	남 자	39( 18.4)
	여 자	173( 81.6)
연령	20세 이하	195( 92.0)
	21세 이상	17( 8.0)
학년	1학년	196( 92.5)
	2학년 이상	16( 7.5)
주거형태	기숙사	134( 63.2)
	자취 또는 하숙	8( 3.8)
	부모님과 함께 산다	70( 33.0)
종교	종교없음	124( 58.5)
	개신교	51( 24.1)
	천주교	27( 12.7)
	불교	8( 3.8)
	기타	2( .9)
합계		212(100.0)

표 2.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

단위:명(%)

구분	남자 (N=39)	여자 (N=173)	계 (N=212)	p-값*
죽음교육 필요성				.022*
필요하다	15( 38.5)	92( 53.2)	107( 50.5)	
보통이다	14( 35.9)	64( 37.0)	78( 36.8)	
필요하지 않다	10( 25.6)	17( 9.8)	27( 12.7)	
죽음교육 시행시 참여의사				.839
있다	24( 61.5)	111( 64.2)	135( 63.7)	
없다	15( 38.5)	61( 35.3)	76( 35.8)	
죽음교육 시행 기관				.803
대학	14( 35.9)	58( 33.5)	72( 34.0)	
대학원	3( 7.7)	7( 4.0)	10( 4.7)	
교육기관(학회, 협회 등)	5( 12.8)	46( 26.6)	51( 24.1)	
종교기관	6( 15.4)	14( 8.1)	20( 9.4)	
사회복지기관	5( 12.8)	20( 11.6)	25( 11.8)	
주민자치센터	-	1( .6)	1( .5)	
의료기관	4( 21.1)	15( 8.7)	19( 9.0)	
문화센터	1( 2.6)	6( 3.5)	7( 3.3)	
기타	1( 2.6)	4( 2.3)	7( 3.3)	
적합한 죽음교육 시기				.850
초등학교 이하	-	2( 1.2)	2( 46.1)	
중학교	6( 15.4)	18( 10.4)	24( 11.3)	
고등학교	10( 25.6)	41( 23.7)	51( 24.1)	
대학교	20( 51.3)	98( 56.6)	118( 55.7)	
대학원	3( 7.7)	14( 8.1)	17( 8.0)	
교육비				.636
10 만원 미만	11( 28.2)	61( 35.3)	72( 34.0)	
10-19 만원	2( 5.1)	11( 6.4)	13( 6.1)	
20 만원 이상	1( 2.6)	9( 5.2)	10( 4.7)	
무료	25( 64.1)	92( 53.2)	117( 55.2)	
합계	39(100.0) ( 18.4)	173(100.0) ( 81.6)	212(100.0) (100.0)	

표 3. 죽음교육의 시행 횟수

단위 : M±S.D.

구분	남자	여자	계	p-값*
한주당 시행 횟수	1.31±0.55	1.18±0.45	1.21±0.47	.189
전체 시행 주수	6.49±5.05	4.51±3.40	4.88±3.83	.028*

표 4. 죽음교육의 내용 및 인식

단위:명(%)

구분	남자 (N=39)	여자 (N=173)	계 (N=212)	p-값*
우리나라 죽음교육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056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10( 25.6)	23( 13.3)	33( 15.6)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15( 38.5)	104( 60.1)	119( 56.1)	
매체를 통해 죽음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2( 5.1)	6( 3.5)	8( 3.8)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 5.1)	7( 4.0)	9( 4.2)	
죽음을 말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9( 23.1)	33(19.1)	42( 19.8)	
기타	1( 2.6)	-	1( .5)	
죽음교육의 주요내용				.679
장례절차 및 예식에 관한 정보제공	2( 5.1)	8( 4.6)	10( 4.7)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정보제공	6( 15.4)	21( 12.1)	27( 12.7)	
대인관계를 기피하지 않고 정상생활을 하도록 도움	7( 17.9)	21( 12.1)	28( 13.2)	
상실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 제공	24( 61.5)	123( 71.1)	147( 69.3)	
계	39(100.0) ( 18.4)	173(100.0) ( 81.6)	212(100.0) (100.0)	

표 5.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명(%)

구분	남자 (N=38)	여자 (N=250)	계 (N=288)
죽음교육이 필요한 이유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이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6( 15.8)	37( 14.8)	43( 14.9)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하여	7( 18.4)	49( 19.6)	56( 19.4)
언젠가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8( 21.1)	55( 22.0)	63( 21.9)
앞으로의 삶의 승화와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기 위하여	6( 15.8)	24( 9.6)	30( 10.4)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보기 위하여	5( 13.2)	43( 17.2)	48( 16.7)
가족, 친구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6( 15.8)	39( 15.6)	45( 15.6)
기타	-	3( 1.2)	3( 1.0)
계	38(100.0) ( 13.2)	250(100.0) ( 86.8)	288(100.0) (100.0)

표 6. 죽음 교육의 교육자

단위:명(%)

구분	남자 (N=51)	여자 (N=241)	계 (N=292)
죽음교육의 교육자			
교수	11( 21.6)	38( 15.8)	49( 16.8)
성직자	6( 11.8)	12( 5.0)	18( 6.2)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5( 9.8)	34( 14.1)	39( 13.4)
죽음 준비교육 전문가	25( 49.0)	150( 62.2)	175( 59.9)
사회복지사	1( 2.0)	4( 1.7)	5( 1.7)
기타	3( 5.9)	3( 1.2)	6( 2.1)
합계	51(100.0) ( 17.5)	241(100.0) ( 82.5)	292(100.0) (100.0)

표 7. 죽음교육 내용별 중요도

단위 : M±S.D.

구분	남자	여자	계
한국인의 죽음이해	2.69±0.98	2.57±0.72	2.59±0.78
현대인의 죽음이해	2.53±1.02	2.15±0.70	2.22±0.78
죽음의 의미와 인식 및 삶의 가치	2.08±0.84	1.93±0.72	1.94±0.75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과 불안감 감소 및 극복방법	2.08±1.26	2.04±0.86	2.04±0.94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평소 더 자주하기(삶과 죽음은 함께하는 여정)	2.54±1.12	2.97±0.95	2.89±1.00
죽음으로 인한 사실과 슬픔(비탄) 및 극복하기	2.18±0.91	2.06±0.85	2.08±0.86
시간의 소중함 및 의미 있는 미래의 삶(여생)준비	1.97±1.04	1.83±0.82	1.85±0.86
죽음과 그 이후 내세, 영혼과 육체 문제 등의 종교적 이해	3.11±1.31	3.15±1.04	3.14±1.09
죽음에 대한 금기 없애기 및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2.62±1.09	2.44±0.85	2.46±0.90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윤리문제 (존엄사, 생명연장, 안락사, 자살방조)	2.23±1.11	2.09±0.80	2.11±0.86
법의학적인 문제 파악 (죽음정의와 판정, 수사, 시신 및 장기기증)	2.28±1.19	2.12±0.84	2.15±0.91
유언 작성 및 법률적 효력, 유산정리(상속, 기탁, 기증 등)	2.33±1.24	2.25±0.83	2.26±0.92
나의 장례식을 미리 계획 (장례문화와 이해, 유형 및 절차, 장지, 시신처리 등)	2.92±1.22	2.42±0.91	2.51±0.99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와 정리	2.31±1.24	2.06±0.83	2.10±0.92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나눔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2.39±1.11	2.08±0.82	2.14±0.89
자살 및 자살예방(방지)	1.92±1.18	1.75±0.77	1.78±0.86
호스피스 교육, 암환자 돌보기 및 병에 대한 진실 말하기	2.50±1.11	2.15±0.84	2.21±0.90
고령(화)사회, 노화 및 노년기의 변화와 특성	2.51±0.91	2.41±0.78	2.43±0.80
돌연사 등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의학적 상식과 예방	2.49±0.94	2.13±0.82	2.98±0.85
죽음준비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및 방법	2.46±1.21	2.11±0.82	2.18±0.91
화해와 용서	2.03±1.06	2.13±0.88	2.11±0.92

참고문헌

[1] 현은민, 대학생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5, no 7, 2014.  
 [2] 정현채, 의료인에 대한 죽음 교육으로서 영화의 활용, 대한소화기학회지, vol 60, no 3, pp. 140-148, 2012.  
 [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3.  
 [4] 교육부, 대학별 자살자 현황, 2015.  
 [5] 신은주, 죽음 준비교육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생의 의미, 죽음 불안 및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vol. 22, no. 3, pp. 65-74, 2011.  
 [6] 김은희, 이은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vol. 39, no. 1, pp.1-9, 2009.  
 [7] 김숙남, 최순옥, 이정지, 신경일,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 22, no. 2, pp. 141-153, 2005.  
 [8] 송세현, 월불교인의 죽음 준비와 웰다잉 인식,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 정의정,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벤처창업연구, vol. 7, no. 2, pp. 189-194, 2012.  
 [10] 김광환, 김용하, 안상윤, 이종형, 이무식, 김문준, 박아르마, 황혜정, 심문숙, 송현동, 일반인 대상 웰 다잉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 디지털 융복합 연구, vol. 12, no. 8, pp. 369-376, 2014.

[11] 김광환, 김용하, 안상윤, 이종형, 황혜정, 이무식, 김문준, 박아르마, 심문숙, 송현동, 의료진 대상 웰 다잉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5, no. 10, pp. 6234-6241, 2014.

저자소개

● 송 유 림(Yu-Rim Song)



- 2015년 2월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사
- 2015년 3월 ~ 현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재학
- 관심분야 : 보건학, 의료정보, 병원경영
- E-Mail : eng8403@naver.com

## ● 박 아르 마(Arma Park)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학, 문화학, 논리학
- E-Mail : parkarma@konyang.ac.kr

## ● 김 광 환(Kwang-Hwan Kim)



- 2001년 2월 : 계명대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행정
- E-Mail : kkh@konyang.ac.